



농어촌公 순창지사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

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(지사장 편동현)가 관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.

실제 순창지사는 지난 17일 지사 대회의실에서 관내 현장 근로자와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. 이 자리에서는 ▲작업 전 안전수칙 준수 ▲장비 사용 때 주의사항 ▲최근 발생한 유사 사고 사례 공유 ▲위험 요인별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어졌다.

아울러 공사 품질은 물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 방향 및 개선사항도 함께 논의했다. 특히 지사 측과 시공사 및 감리단 관계자들은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방안을 비롯해 중점 위험 공사종류에 대한 사전예방 대책 외에도 현장 내 안전문화 조성 방안 등도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. 순창=우기홍 기자